

근대5종 광주시청 전용태, 세계선수권 계주 은메달

정진화와 짝 이뤄 마지막 경기 '레이저 런'서 중국 추월하며 2위 개인전만 열리는 도쿄 올림픽 출전권도 이미 확보...메달 기대감

한국 근대5종의 간판 전용태(광주광역시청)와 정진화(LH)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계주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용태와 정진화는 9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1 국제근대5종연맹(UIPM)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계주에서 총 1486점을 획득, 러시아의 알렉산더 리파노프-막심 쿠즈네초프(1491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들은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세계선수권대회 계주 종목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전용태와 정진화는 수영, 펜싱, 승마 성적에 따라 마지막 경기 레이저 런(사격+육상)에서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출발했으나 정진화의 막판 스피드로 중국(1482점)을 제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용태는 UIPM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진화 형의 컨디션이 정말 좋았다. 중국 팀과 접전을 펼쳤는데 전략을 잘 세운 덕분에 이긴 것 같다"며 "좋은 성적을 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진화는 "올림픽이 두 달가량 남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가까운 일본에서 열리는 만큼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근대5종은 남녀 개인전만 열리며, 한 나라에서 남녀 2명씩만 출전할 수 있다.

남자부에선 전용태와 이지훈(LH)이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가운데 정진화도 13일까지 이어질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성적에 따라 도쿄행을 타진할 수 있다.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나는 14일을 기준으로 출전권을 탄 선수가 3명 이상이 되면 최종 2명을 추려야 한다.



한국 근대5종의 전용태(왼쪽)와 정진화가 9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1 국제근대5종연맹(UIPM)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계주에서 2위에 올라 은메달을 획득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여자 프로농구단 유치 나섰다

이상동 회장, 이병완 여자농구연맹 총재 만나 의사 전달 광주시·광주농구협회 등과 협의해 유치 활동 추진 계획

광주시체육회는 여자 프로농구단의 광주 연고지 유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상동 체육회장은 전날 광주에서 이병완 한국

여자농구연맹 총재를 만나 농구단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시체육회는 광주시, 광주농구협회 등과 협의해

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에는 우산초, 방림초, 문화중, 수피아여중, 광주고, 수피아여고, 조선대, 조선이공대, 광주대 등 총 9개의 농구팀이 있다.

1998년 광주 신세계가 창단한 여자 농구단은 2006년 경기 부천으로 연고지를 이전했다.

이상동 회장은 "광주 연고로 있던 신세계 쿨캣

여자 농구단이 부천으로 옮겨 시민들을 위한 동계 스포츠가 없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우리 지역 여자 프로 농구단 연고지 유치를 위해 체육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는 최근 여자 프로 배구단이 유치돼 15년 만에 동계 스포츠 볼모지에서 탈피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사령탑 선임 난항 겪는 토트넘 폰세카 전 AS로마 감독과 협상

모리뉴(58·포르투갈) 감독 경질 후 사령탑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가 파울루 폰세카(48·포르투갈·사진) 전 AS로마(이탈리아) 감독 영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판은 9일(현지시간) "토트넘이 폰세카 감독에게 계약을 제안했고,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년에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3년이다.

폰세카 감독은 2019년 로마에 부임했으나, 2020-2021시즌을 마치고 2년 만에 팀과 결별했다.

공교롭게도 로마의 새 감독은 토트넘이 경질한 모리뉴 감독이다. 모리뉴 감독은 올해 4월 19일 토트넘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보름만인 지난달 4일 로마에서 재취임에 성공했다.

토트넘이 폰세카 감독과 동행을 확정한다면 두 팀은 감독을 맞바꾸는 셈이다.

시즌 중에 모리뉴 감독을 떠나보낸 토트넘은 한 달 반이 지나도록 후임 감독을 찾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독일 라이프치히를 이끈 울리안 나겔스만 감독을 후보로 올렸으나 그는 바이에른 뮌헨행을 택했고, 브랜던 로저스 레스터시티(잉글랜드) 감독, 에릭 텐 하흐 아약스(네덜란드) 감독의 영입도 불발됐다.

최근에는 모리뉴 감독 이전에 팀을 이끈 마우시리오 포체티노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감독의 복귀를 타진하다 실패했고, 안토니오 콘테 전 인터 밀란(이탈리아) 감독과 협상마저 결렬된 상황이었다.

결국 토트넘은 다음 선택지로 폰세카 감독을 선택했다.

폰세카 감독은 로마에서의 성적은 다소 아쉬웠지만, 2016~2019년 샤흐타르 도네츠크를 지휘하며 리그와 컵대회에서 세 차례의 더블(2관왕)을 달성했고, 2013년 포르투에서는 포르투갈컵 슈퍼컵, 2016년 브라가에서는 포르투갈컵 우승을 이끌었다.



나달

나달-조코비치 4강 격돌

프랑스오픈 최고 빅매치...예측 불허 명승부 예고

올해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4강에서 만난 노박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라파엘 나달(3위·스페인)이 서로 명승부를 다짐했다.

조코비치와 나달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남자 단식 준준결승에서 나란히 이어 11일 준결승에서 격돌한다.

둘은 남자 프로테니스에서 '최고의 라이벌'이다. 지금까지 무려 57차례 만나 29승 28패로 조코비치가 한 번 더 이겼다.

로저 페더러(8위·스위스)와 나달의 라이벌 관계도 이들 못지않지만 둘의 상대 전적은 24승 16패로 나달의 우세다. 또 조코비치와 페더러는 27승 23패로 조코비치가 더 많이 이겼다.

이들 '빅3'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만난 횟수와 승률에서 조코비치와 나달의 라이벌 관계가 가장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계 랭킹이나 상대 전적은 조코비치가 앞서지만, 프랑스오픈은 누가 뭐래도 '나달의 무대'다.

나달은 프랑스오픈에서만 13번 우승, 단일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클레이코트의 황제'다.

조코비치와 프랑스오픈 상대 전적 7승 1패, 클레이코트 상대 전적 19승 7패로 모두 압도하고 있다. 지난해 이 대회 결승에서도 나달이 조코비치를 3-0(6-0 6-2 7-5)으로 완파했다.

나달은 조코비치에 대해 "우리는 서로 잘 아는

사이"라며 "조코비치와 경기에서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 불허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코비치 역시 "매우 기대되는 경기"라며 "클레이코트에서 나달을 상대하는 것은 여느 경기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각오를 전했다.

그는 "긴장감이나 팬들의 기대치가 더 큰 경기"라면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필승을 다짐했다.

메이저 대회 상대 전적에서도 나달이 10승 6패로 앞서지만, 조코비치는 나달의 프랑스오픈 통산 전적 105승 2패의 2패 중 1패를 안긴 선수다.

나달은 프랑스오픈에서 2009년 16강전 로빈 소더링(스웨덴)에게 1-3(2-6 7-6(7-2) 4-6 6-7(2-7))으로 처음 졌고, 2015년 8강에서 조코비치에 0-3(5-7 3-6 1-6)으로 패한 바 있다.

나달과 조코비치 경기 승자는 스테파노스 차치파스(5위·그리스)-알렉산더즈베레프(6위·독일) 경기에서 이긴 선수와 결승전을 치른다.

나달이 우승하면 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21회 우승을 달성한다.

조코비치가 우승할 경우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최초로 4대 메이저 대회 단식을 모두 2회 이상 우승한 선수가 된다. 1968년 이전까지 더하면 로드 레이버, 로이 에머슨(이상 호주)이 이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운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크루엘라,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2관	크루엘라,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3관	크루엘라
4관	캐시트릭
5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6관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9관	캐시트릭, 파이프라인
7관 씨네커틀	캐시트릭,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8관 씨네커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실크 로드, 플래시백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윤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6. 26.(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뮤지컬 <베틀의 유령>
일시 : 2021.07.10.(토)-11.(일) 19:30,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37